



# 앞으로의 30년을 탄탄하게 해 줄 밑거름, 신규직원 교육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김동열

2016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신규직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 처음 가보는 협회 본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보다 혹시라도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는 없었는지,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본부에 도착 후 처음 보는 직원들과 인사를 했다. 교육 장소인 5층에 올라가 내가 속해 있는 조에 앉아 있으니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간은 협회 회장님과 이사님들과의 만남. 처음 뵙는 전설과도 같은 분들을 보니, 54년 협회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지는 교육에서는 협회의 검진,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업무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는 팀장들을 통해서 협회 사업 및 비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마음혈액원뿐 아



협회 미래의 슈퍼맨들입니다



사람이 가득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전 100초

나라 실내공기질측정 등 분석 및 학술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첫날 교육을 마친 후 본부와 혈액원 곳곳을 둘러보고 치악산 호텔로 이동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서 협회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맛있는 치악산 호텔의 점심을 먹고 오후 교육에 임했다.

양승철 인력개발팀장께서는 진정한 신규직원 교육의 첫 번째 의의는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장과 조의 이름을 정하고, 신규직원인 우리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간직한 소중한 지식을 센터에 돌아가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조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자, 기대했던 몸으로 하는 프로그램 “도전 100초”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상 호텔 로비에서 진행했다. 강원도의 차가운 기운이 엄습했지만, 신규직원의 패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강사님의 설명을 따라하면서 차가움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울 수 있었다.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몸풀기를 한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몇 가지의 미션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었다. 모두 머리를 맞대며 작전을 짜고 연습을 하면서 언제 서먹했냐는 듯 웃



우리가 협회의 얼굴



오손도손 4주

고 즐겼다. 서로 협동하여 미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센터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두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휘 지나갔다. 몸을 움직인 덕분에 잠도 푹 잘 수 있었다.

조원들과 많이 친해진 셋째 날, 내가 협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법!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표출형이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육생들이 자신의 유형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자신의 유형을 알고 상사와 다른 직원들의 유형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업무를 하면서 유형에 따라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줄이고 팀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표출형 답게 센터의 다른 직원들에게 때로는 활력이 되고, 때로는 일을 진행하는데 앞장서는 행동대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종료 후 간단한 뒤풀이로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날 교육, 지금까지의 강의를 피드백하고, 조합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내가 있어야 팀이 있고, 팀이 있어야 협회가 운영된다는 자기 주도 셀프 리더십 교육. 신규직원이지만 내가 나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3박 4일의 신규직원 교육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신규직원은 아니지만”이나 “신규직원이라고 하기에는 협회를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센터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말이고 어찌 보면 힘들게 된 정규직인 만큼 센터에서, 혹





은 협회에서 한 축을 맡아 든든히 지탱해 달라는 부탁인 것이다.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현재는 강의 중에 들은 세세한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번 교육에서 받았던 생생한 느낌은 그대로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협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산업보건인으로서 30년 미래를 탄탄하게 해 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귀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싶다. 더욱 열심히 하는 신규직원을 넘어 진정한 협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다. 🍀